

### 게시판

**아동심리정서지원센터 개소** 구로청소년 수련관은 7월부터 아동심리정서지원센터를 연다. 지역 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와 상담을 진행한다. 또 우수한 강사진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어린이 피아노 교실도 열린다. (02)838-1318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 조계사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법연수원 제 36기 연수생들이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봉사를 실시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법률이나 일상생활 속의 법률적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계사 교육관 1층에서 받을 수 있다. (02)732-2115

**여름 학생 수련회 불교총지공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충남 보령 청소년수련원에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제10회 어린이 여름학생수련회를 연다. '산과 바다와 함께 하는 마음수련의 장'이라는 주제로 7월 11일까지 통리원에 접수하면 된다. (02)552-1080



**어린이 숲속학교** 공주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평사로 어린이 여름숲속학교(사진)를 떠난다. 6세 이상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041)858-3900

### 20면 상식 퍼즐 정답

누	진	통	호	감	자
거	풍	차			고
만			남	생	이
금	강	견	고		래
			가	감	산
금	관	출	현		날
연		부	가	가	치

세 번이나 연꽃을 보러 삼지를 찾아오니  
푸른 잎 붉은 꽃은 그때와 변함없다.  
다만 꽃을 바라보는 옥당의 손님만이  
마음은 변함없어도 머리털이 희어졌네.  
상련(喪戀) / 고려시대 박예



## 연꽃 향에 취하다

### 전국 연꽃축제 잇따라 개막

처염상정(處染常淨: 더러운 물에서 살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화과동시(花果同時: 꽃이 피는 동시에 연밥이 함께 있어서 인과의 도리를 나타낸다), 종자불실(種子不失: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싹튼다) 진공묘유(真空妙有: 뿌리에서 줄기까지 속이 비어있다) 등과 같은 덕성을 지녔다는 연꽃.

바야흐로 연꽃의 계절이다.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지는 연꽃 향기에 취하고 싶다면,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가까운 사찰로 떠나보자. 해마다 각 지자체와 사찰에서 열리는 연꽃축제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것이다.

올해는 김제 청운사가 '하소백련축제'로 가장 먼저 연꽃축제의 막을 올렸다. 6월 23일에 시작돼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축제가 진행되는 하소백련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연꽃차 생산지. 축제기간동안에는 차를 통해 명상에 들기, 다례시연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중국 명나라 시대 작품인 길이 53미터의 대형 '오백나한도'가 전시된다. (063)543-1248

강화 선원사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제3회 논두렁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논두렁에 피어난 1만1천여송이의 연꽃이 장관을 이룬다. 올해는 주지인 상원스님이 직접 작곡한 연꽃축제노래로 개막식을 연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연방면, 연꽃밭 등 연으로 만든 사찰음식도 맛볼 수 있다. (032)933-8234

대표적인 연꽃사찰인 아산 인취사는 연꽃이 개화한 시기 동안 연제나 무료로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또 연꽃이 만개하는 7월과 8월 중 경로잔치와 백련시사가 열린다. 올해로 13회째인 백련시사는 사찰 연꽃축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으로 손꼽힌다. 전국 각지의 문인, 시인, 화가, 서예가 300여 명이 모여 연꽃을 감상하며 자유롭게 시·서·화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연



연꽃이 가득한 연못에서 생태계관찰 체험활동을 하는 아이들.



'무안 백련대축제'에서는 백련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제공=무안군청 관광홍보과

### 연꽃축제 및 연꽃관찰이 가능한 곳

축제명	장소	기간	연락처
서울연꽃축제	서울 봉원사	8월 16일~30일	(02)392-3007
봉선사연꽃축제	남양주 봉선사	7월 23일~25일	(031)527-1951-3
태안연꽃축제	청산수목원	7월 16일~8월 중순	(041)675-0666
공남지연꽃축제	부여 공남지	7월 21~26일	(041)830-2252-5
세계연꽃축제	인동 덕왕사 경내	8~9월	(054)853-3855
망월사연꽃관찰	철곡 망월사	7월 중순	(054)745-7579
백련사연꽃관찰	전남 강진 백련사	7월 중순	(061)432-0837
전주연꽃예술제	전주 덕진공원	7월 30일~31일	(063)252-9488
대원사연꽃축제	보성 대원사	9월 1일~30일	(061)852-1755

잎을 잔 삼아 연차를 마시고, 연으로 만든 전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 연꽃분양을 원하는 방문객에게는 무료로 나눠준다. (041)542-6441

지자체가 준비한 연꽃축제도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동양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전남 일로읍 회산 백련지에서 열리는 '무안 백련대축제'는 작년에만 약 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10만평에 이르는 백련지에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멸종위기 희귀

종인 '가시연꽃'을 비롯, 홍련, 백련, 수련, 어리연, 왜개연 등 각종 연꽃을 볼 수 있다.

15일은 '불교문화행사의 날'로 지정해 법요식, 괘불조성, 연차시연, 연꽃 및 연등 만들기, 자기소원 걸기 등 여러가지 불교문화 행사를 갖는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무안백련대축제는 연꽃이 갖는 불교적 의미에 주목, 매년 불교문화행사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061)450-5319, 5224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 되돌아 걷다

구름의 남쪽 감독·주연 출연·전장장 장르·드라마 상영시간: 100분 등급: 15세 이상

유행과 후진이 없는 인생의 행로에서 그동안 걸온 길과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과 동경은 누구나 있기 마련. 영화 '구름의 남쪽'은 이런 '인생의 두 갈래 길'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다. 공장에서 은퇴한 쉬다친은 번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산다. 딸과 가족들은 헬스 강사인 딸의 에어로빅 사업에 모아놓은 돈을 투자하려고 그를 부추기나 쉬다친은 그런 일에 남은 미래를 보려는 것이 영 마땅치 않다. 대신 그는 멀리 타베트 근처의 운남에 가고 싶어한다. 젊은 시절 그곳에서 살 기회가 있었으나 결혼을 하면서 그 길을 포기했던 그는 운남에 갔다면 자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쉬다친은 아는 이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운남으로 가고 싶었던 그의 젊은 날의 꿈을 찾아 떠나는데... 우리는 누구나 선택하지 않은 길을 돌아보게 된다. 인생에서

이러한 갈림길은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는 본인만이 알고 있다. 이런 저런 상황을 생각해보고, 혹은 즉흥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한 번쯤 갈림길에 놓였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후회해보기도, 웃어보기도 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아마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판단에 따른 '과정의 소중함'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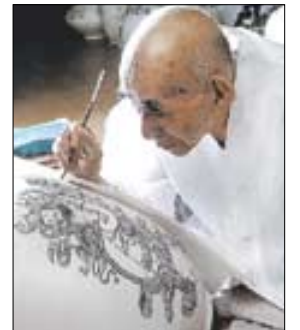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전시

## 현세에 꽃핀 극락세상

### 만봉 스님 단청 불화전

오랜만에 단청장 만봉 스님의 단청·불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이동식)은 6월 30일~7월 19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시회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현세에 꽃피우는 극락'을 주제로 '만봉 이치호 단청·불화전'을 연다. '극락도' '관세음보살도' '영산회상도' 등 단청·불화 작품 90여 점이 선보인다. 만봉 스님의 최근작품도 만날 수 있으며, 스님 제자인 단청장 전수자들의 작품 2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6·13일에는 단청제자시연회도 마련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스님.

백수를 바라보는 만봉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6세에 불가에 입문, 9천여 장의 그림수업을 거쳐 18세에 '금어'의 칭호를 받았다. 공주 마곡사 대웅전을 비롯해 서울 도선사, 금강산 표훈사와 유점사 등 수많은 사찰의 전각을 장엄한 바 있다. 관람료는 무료. (02)3453-1685 강신재 기자

## '선과 면' 경계가 어디인가

### 전각가 김병윤展... '괘' 주제로 불경 담아



경전의 글자와 글귀의 뜻은 새로운 형태의 문자로 형상화한 전각 작품.

전각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전각은 단순한 글씨를 조각한 '서각'과는 달리, 글자와 글귀의 뜻을 상징문자와 같이 형상화한 후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조각예술

의 한 형식. 중견 전각 작가인 목어 김병윤 선생은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한 작품 49점을 7월 4~9일 부산시청 제1전시장에 내놓는다.

수레바퀴와 규범을 뜻하는 '괘(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의 백미는 불경을 담은 전각들. 김병윤 선생은 한자로 풀어낸 반야심경을 형상화한 작품 4점을 비롯해, 각종 경전 글귀들을 새로운 형태의 문자로 재구성해 새긴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2000년 11월 '공(空)'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회를 가진 이후의 성과들을 모은 자리다.

한국 최고의 전통 전각 작가였던 이석 김재화의 수제자인 김병윤 선생은 한국현대미술대전 금상(1989년), 동남아 미술대전 특별상(1989년), 한국현대미술대전 특선(1991년)을 수상했다. (051)554-0146 강신재 기자

### 방송 프로그램

<p><b>BBS</b> 8:00 불교강좌 5월 06:25 오늘은 좋은 날 6월 11:05 아름다운 초대 7월 07:05 아침저널 8월 09:05 행복만 미소 9월 14:05 전신문의 낭만라디오 10월 10:00 라디오 범회</p>	<p><b>sky-life:161</b>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p> <p>4월 08:00 명상음악산책 5월 15:10 명상음악 6월 19:30 열린마당 7월 15:10 휴먼다큐 8월 19:30 절로 가는 길 9월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10월 15:20 산중대담</p>
---	--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7월 8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준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7월 7일 아침 8:35~09:20) 동양 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 연인다인(蓮人茶人)-연화차

새벽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연꽃잎 중에 백련잎만을 정성스레 제다한 무안백련대축제 기획 상품이다.

차를 다관에 넣고 70~80℃로 식힌 물을 부은 후 2~3분 동안 우려내면 은은하고 깊은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연잎차는 예로부터 피를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준다하여 불가에서 많이 마셨다. 가격 5만원